

치과 국제표준화 총회 국내에서 처음 개최

치과산업 디지털화, 국제표준으로 견인

49th Annual Meeting
ISO/TC 106
Dentistry

임플란트 이후 치과 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디지털 치과(Digital Dentistry)' 분야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컴퓨터를 이용하여 더욱 정교하고 신속하게 다양한 소재의 인공 치아를 제조할 수 있는 치과용 CAD(Computer aided design)/CAM(Computer aided manufacturing) 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화가 본격 추진된다.

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화기구 ISO의 치과기술위원회(ISO TC 106) 총회를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송

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했다. 한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이번 총회에는 미국, 일본, 독일 등 22개 국 35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오승한 원광대학교 교수가 제안한 '치과용 CAD/CAM의 상호운용성' 등 치과용 CAD/CAM 시스템 관련 4건의 표준(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최근 치과용 CAD/CAM 시스템 분야에 대한 각국의 적극적인 표준화활동으로 지난해 ISO/TC 106 내





별도의 분과위원회가 신설된 바 있다. 현재 용어, 호환성, 치아 스캔 장비와 인공 치아의 정확도 측정방법에 대한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3D 프린팅과 관련된 표준화에 대해서도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이 제안한 치과 기술 3건이 신규로 제안되었다. 제안된 3건은 메타바이오메드사의 열연화 근관 봉쇄재료와 오성엠앤디사의 발치겸자 및 상악동 엘리베이터 기술이다.

특히 열연화 근관 봉쇄재료는 치아 신경치료 재료로 기존의 딱딱한 플라스틱 막대를 삽입하는 방법과 달리 밀폐성이 좋고 간단하여 우수한 신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관련 세계시장은 약 1조 원 규모로 국내에서는 메타바이오메드 등 7개 업체에서 생산 중이며, 해외시장의 약 30%를 점유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는 치과재료, 치과용 기구, 임플

란트, 구강관리용품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화도 동시에 진행됐다. 치과재료 분야에서는 치과용 금속재료의 위해 성분으로 납을 추가하고, 아말감에 사용되는 수은의 사용량을 제한하는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국제표준의 개정이 추진되었다.

또한 구강관리용품 분야에서는 치약이나 구강 양치액에 포함된 충치 예방제인 불소의 함량을 정확하고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에 대한 국제표준화 방안도 논의되었다.

김정환 기술표준원 지식산업표준국 국장은 “국내 기업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우리나라 치과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향상되고 디지털 치과가 조기 실현되어 IT/BT 융합산업으로서의 치과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술표준원에서는 앞으로 많은 치과산업 전문가가 국제표준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과 기반구축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T&S**

〈표〉 국제표준화 진행중인 치과용 CAD/CAM 시스템 표준(안)

번호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제안)
1	ISO/AWI 18618	CAD/CAM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2	ISO/AWI 18675	CAD/CAM용 지르코니아(수복재료)	2013년 NP 채택 (2012년 제안)
3	ISO/AWI 18739	CAD/CAM 시스템 관련 용어	
4	ISO/AWI 18845	CAD/CAM을 통해 가공된 수복물의 정확도 평가방법	